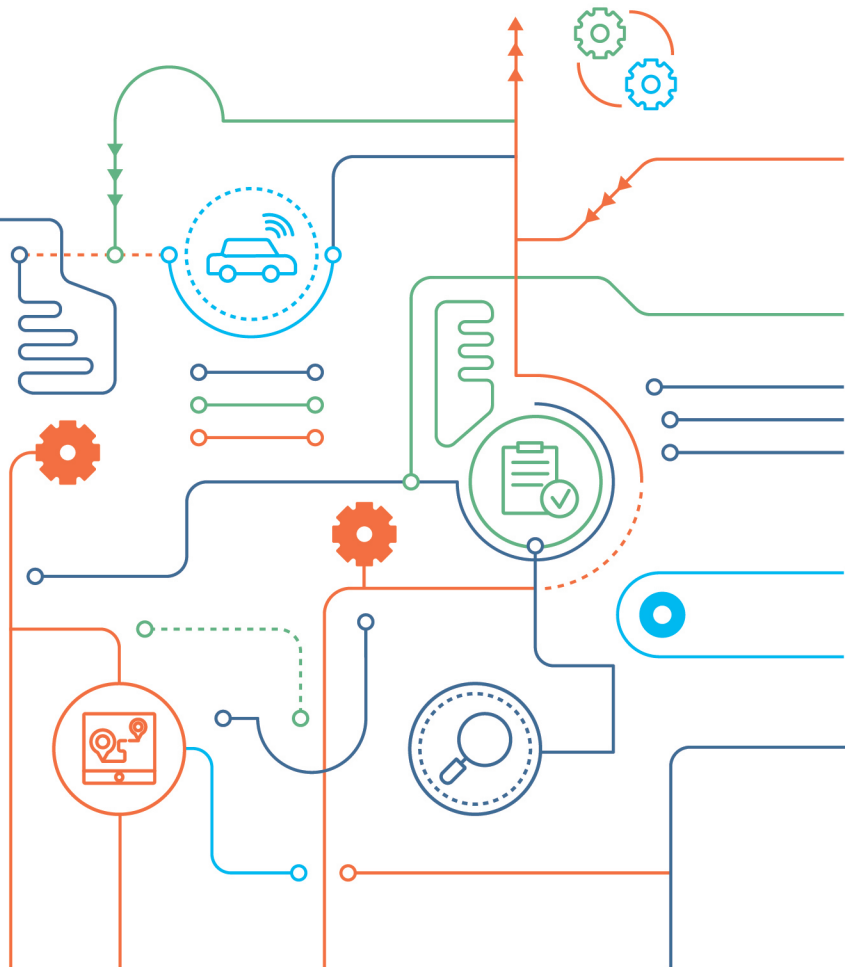


2024-03-145



# 부산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현안과 정책방안

장지현 · 김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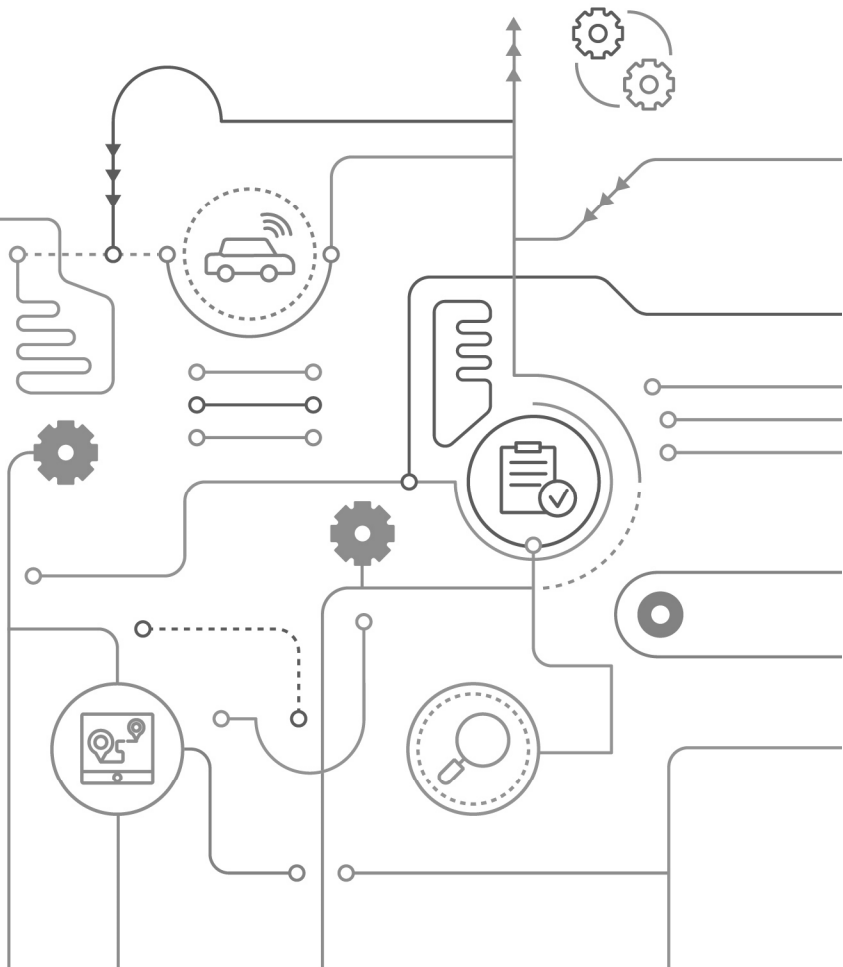


2024-03-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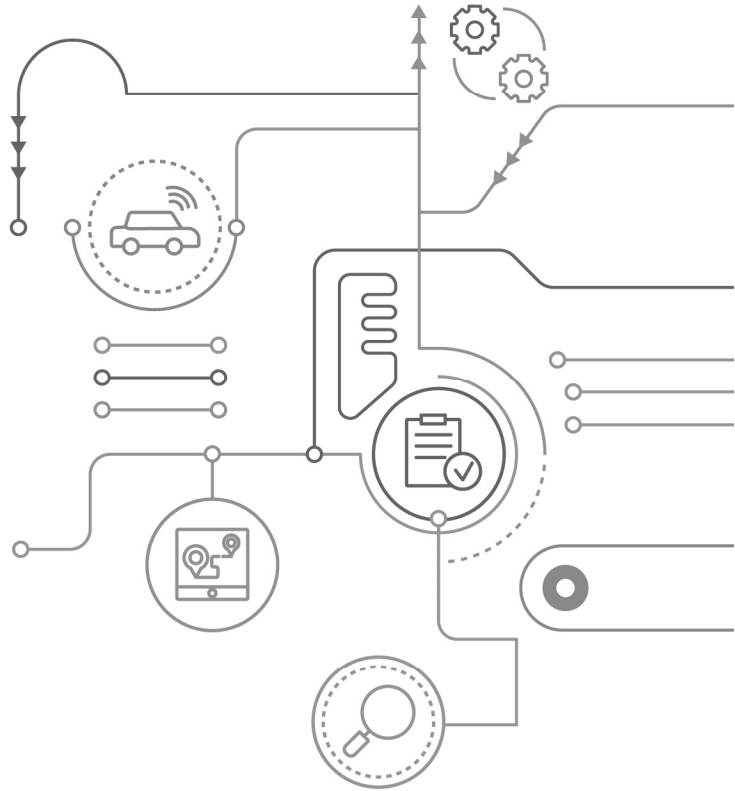
BDI Insights

# 부산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현안과 정책방안

장지현 김선우



# BDI Insights



## Contents

|                                  |    |
|----------------------------------|----|
| I. 연구개요 .....                    | 6  |
| II. 자립준비청년 정책 현황 .....           | 8  |
| III. 부산시 자립준비청년 자립현안 .....       | 18 |
| IV. 부산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 35 |

## 요약

- 만18세 보호체계를 벗어난 자립준비청년들은 갑작스런 성인기에 직면하게 됨
-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정책을 보완하고자 확대함
  - 자립정착금 인상, 자립수당 신설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됨
- 정책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욕구와 어려움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불안정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자립준비청년은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보호아동으로 성장하였음
  - 불안정한 돌봄 환경, 분리 경험 등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도를 높임
- 가정위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은 돌봄 수요자에서 제공자로 역할이 전환됨
  - 어린 시절 조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면서 종종 '영 케어러'(Young Carer) 역할을 맡게 됨
  -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가정위탁 보호자에게 자립정착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배경에 따라 자립교육에 대한 접근과 인식이 상이함
  - 생활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배경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에서 매년 자립교육을 받지만 무의미하다고 느낌. 또한, 자립한 선배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음
  - 가정위탁 배경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가 되면 스스로 나가야 한다는 막연한 인식과 자립준비와 관련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함

## 요약

- 반면 종사자들은 자립준비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종사자들은 제도적 또는 조직적 관점에서 자립교육의 존재를 강조하는 반면, 자립준비청년들은 교육이 실질적인 자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평가함
- 보호아동 시절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결핍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이 느끼는 정서적 결핍은 단순히 부정적 감정을 넘어서 삶에 대한 의욕, 목표, 방향성 등이 부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보호아동 시절부터 시작하여 자립준비청년으로의 진입과 성인기로의 이행을 포함하는 전 생애과정에 접근해야 함
- 안전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체계와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
  -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사업을 확장하여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에 대한 연습 기간을 줄 수 있도록 함
  - 외로움과 고립감 감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서비스원의 연계·협력을 구축하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홍보와 청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립준비청년들의 자조모임 확대를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해줘야 함
- 정리하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연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요약

### 〈보호(연장)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정책(안)〉

| 구분      | 보호아동                                                                                                                                                     |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                                                                                                                                                                                |
|---------|----------------------------------------------------------------------------------------------------------------------------------------------------------|--------------------------------------------------------------------------|---------------------------------------------------------------------------------------------------------------------------------------------------------------------------------------|
| 심리·정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보호환경 제공</li> <li>· 아동양육시설 환경 개선 필요</li> <li>· 시설 문화 개선</li> <li>·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지(support) 서비스 강화</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건강 측면 지원 강화</li> <li>-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홍보 강화</li> <li>- 자조모임 확대</li> </ul>                                                                      |
| 경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 현금지원을 통한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 발휘</li> </ul>                                                                                                      |
| 지역사회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체계, 정규교과과정 외 다양한 문화활동,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목적으로한 프로그램 지원</li> <li>· 멘토-멘티 프로그램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사업 확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정체감 형성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li> <li>· 지역 내 다양한 사업 지원에 있어 자립준비청년들의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li> <li>·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가치지향적인 서비스 개발</li> </ul> |

## I

##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① 보호 종료 이후 갑자기 어른이 된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 외 보호체계에  
서 보호를 받다가 통상 만 18세 이후 보호체계를 떠나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을 의미함
  - 성인이 된 후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을 지칭함. 다만 이들은 일반적인 청년들과  
달리 가정이 아닌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성장한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
  - 만 18세에 도달한 보호아동 중에서 보호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함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을 자  
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함
-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청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2년차와 3년차 자립준  
비청년 중 50% 이상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함(보건복지부·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20대 청년으로 진입한 이들에게 자립은 설렘과 동시에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  
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음(차유림 외, 2022)

## ②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효과는 미지수

- 자립준비청년의 사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제기됨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 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확대됨
  - 자립정착금이 대폭 인상되고 자립수당<sup>1)</sup>이 신설되면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됨

---

1) 2019년 4월 자립수당이 신설됨

- 자립준비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이 불안정한 이유와 어떤 시점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시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보호체계를 떠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할 때 다른 청년들과 구분되는 불안정성을 고찰하고, 이 불안정성이 보호아동으로서의 배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임
  -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험하는 비경제적인 영역의 어려움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배경별 차이를 분석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체계·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자립준비청년 정책 분석
- 심층면접: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관련 종사자 심층면접 수행
  - 심층면접은 다중시각접근법(multivocal approach)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관련 종사자가 바라보는 자립에 대한 의견을 수집함
  - 다중시각접근법은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가진 다양한 대상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인터뷰 방법임(Holstein, J. A., & Gubrium, J. F. (1995). The active interview (Vol. 37). Sage.)

## II

## 자립준비청년 정책 현황

1. 자립준비청년 관련 정책<sup>2)</sup>

## 1)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제10조의2에 따라 설립됨. 아동 권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체계를 구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 아동권리보장원 내 자립지원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보호종료 후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역별 및 보호체계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차이가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2) 자립수당

-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년간 매월 40만원(2023년 기준) 자립수당을 지급함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임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을 경우 지급됨

## 3) 자립정착금

-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잣돈 형태로 지급하며 지역별로 자립정착금은 상이함
- 서울시는 2024년부터 자립정착금을 2,000만원 확대 지원하고자 밝힘

2) 자립준비청년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간한 2023년 자립정보북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 〈2023년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 구분 | 정착금(2023년) |
|----|------------|
| 서울 | 1,500만원    |
| 부산 | 1,000만원    |
| 대구 | 1,000만원    |
| 인천 | 1,000만원    |
| 광주 | 1,000만원    |
| 대전 | 1,500만원    |
| 울산 | 1,000만원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3).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4)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사업 일환으로 후원자 혹은 보호자 도움 등으로 매월 5만원 내 범위(최대 적립금액 월 50만원)에서 1:2 매칭으로 중앙정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함
- 대상아동은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임

#### 5) 기초생활보장제도

- 자립준비청년 다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받고 있음.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하고, 자립정착금을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재산 공제 수준을 확대함

#### 6) 주거지원

- 자립준비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음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받아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에 해당하며,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로 주거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LH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그 외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영구임대주택(1순위), LH 건설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이 있음

## 7) 바람개비서포터즈

- 17개 시·도 자립전담기관을 통해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임
  - 자립 선배 모임으로 후배들(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멘토로서 활동함
  - 자립준비청년들 간 자조모임,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교육, 봉사활동, 역량강화교육 등을 수행함

## 2. 자립준비청년 실태

### 1) 자립준비청년 현황

-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평균 2,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음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만기퇴소 비율이 높고, 가정위탁은 연장종료 비율이 높음
  - 다만,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연장종료 비율은 2017-2018년도에 비해 2019-2021년 사이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 현황(2017~2021년)〉

단위: 명(%)

| 구분    |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계            |
|-------|------|--------------|------------|--------------|--------------|
| 2017년 | 만기퇴소 | 686(66.3)    | 108(70.6)  | 652(46.4)    | 1,446(55.8)  |
|       | 연장종료 | 348(33.7)    | 45(29.4)   | 754(53.6)    | 1,147(44.2)  |
|       | 계    | 1,034(100.0) | 153(100.0) | 1,406(100.0) | 2,593(100.0) |
| 2018년 | 만기퇴소 | 754(70.8)    | 157(81.8)  | 647(48.0)    | 1,558(59.8)  |
|       | 연장종료 | 311(29.2)    | 35(18.2)   | 702(52.0)    | 1,048(40.2)  |
|       | 계    | 1,065(100.0) | 192(100.0) | 1,349(100.0) | 2,606(100.0) |
| 2019년 | 만기퇴소 | 645(65.0)    | 120(69.8)  | 547(38.4)    | 1,312(50.7)  |
|       | 연장종료 | 347(35.0)    | 52(30.2)   | 876(61.6)    | 1,275(49.3)  |
|       | 계    | 992(100.0)   | 172(100.0) | 1,423(100.0) | 2,587(100.0) |
| 2020년 | 만기퇴소 | 536(64.8)    | 112(66.7)  | 351(25.6)    | 999(42.2)    |
|       | 연장종료 | 291(35.2)    | 56(33.3)   | 1,022(74.4)  | 1,369(57.8)  |
|       | 계    | 827(100.0)   | 168(100.0) | 1,373(100.0) | 2,368(100.0) |
| 2021년 | 만기퇴소 | 480(66.1)    | 112(71.3)  | 271(22.2)    | 863(41.1)    |
|       | 연장종료 | 246(33.9)    | 45(28.7)   | 948(77.8)    | 1,239(58.9)  |
|       | 계    | 726(100.0)   | 157(100.0) | 1,219(100.0) | 2,102(100.0)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2022).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2) 자립준비청년 진학·취업 관련 현황

-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2022)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졸업, 대학재학, 대학중퇴 순으로 확인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위탁 배경을 가진 자립준비청년들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반면 아동양육시설 배경을 가진 자립준비청년들은 고등학교졸업이 가장 높음
  - 즉, 자립준비청년 배경에 따라 진로 형태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대학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비롯하여 대학장학금, 지자체장학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함. 즉, 대학등록금 조달에 어려움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 최종학력〉

단위: 명(%)

| 구분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계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368(50.7) | 77(49.0) | 438(35.9) | 883(42)   |
| 대학교 중퇴     | 20(2.8)   | 6(3.8)   | 89(7.3)   | 115(5.5)  |
| 대학교 재학     | 206(28.4) | 43(27.4) | 93(7.6)   | 342(16.3) |
| 대학교 휴학     | 21(2.9)   | 1(0.6)   | 74(6.1)   | 96(4.6)   |
| 대학교 졸업     | 95(13.1)  | 23(14.6) | 504(41.3) | 622(29.6) |
| 기타         | 16(2.2)   | 7(4.5)   | 21(1.7)   | 44(2.1)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2022).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취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 취업형태〉

단위: 명(%)

| 구분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계         |
|------|----------|----------|-----------|-----------|
| 정규직  | 159(58.) | 30(44.8) | 246(50.8) | 435(52.7) |
| 비정규직 | 93(33.6) | 25(37.3) | 190(39.3) | 307(37.2) |
| 기타   | 23(8.4)  | 12(17.9) | 48(9.9)   | 83(10.1)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2022).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3)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 실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2020)」<sup>3)</sup>에 의하면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이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 또한, 보호체계 유형과 보호종료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은 3,104명으로 확인됨

### 〈자립준비청년 자살생각〉

단위: 명(%)

| 구분      |         | 생각해 본적 있음   | 생각해 본적 없음   | $\chi^2$ |
|---------|---------|-------------|-------------|----------|
| 전체      |         | 1,552(50.0) | 1,552(50.0) | -        |
| 보호체계 유형 | 아동양육시설  | 671(47.4)   | 746(52.6)   | 11.9*    |
|         | 공동생활가정  | 180(54.2)   | 152(45.8)   |          |
|         | 대리가정위탁  | 224(55.6)   | 179(44.4)   |          |
|         | 친인척가정위탁 | 288(51.1)   | 276(48.9)   |          |
|         | 일반가정위탁  | 189(48.7)   | 199(51.3)   |          |
| 보호종료 연차 | 1년차     | 381(43.5)   | 494(56.5)   | 28.4***  |
|         | 2년차     | 462(50.2)   | 459(49.8)   |          |
|         | 3년차     | 454(56.4)   | 351(43.6)   |          |
|         | 4년차     | 146(52.1)   | 134(47.9)   |          |
|         | 5년차     | 109(48.9)   | 114(51.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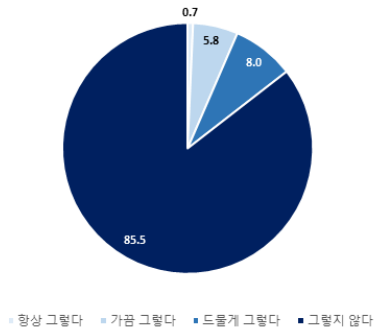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sup>4)</sup>에 의하면 시설퇴소 청년들은 외부활동을 하지 않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균 기간도 길게 나타남
  - 자립준비청년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일반 청년들(30세 이하)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수치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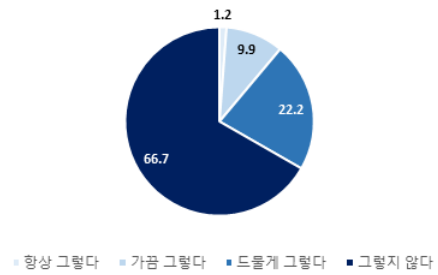
4)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분석 및 정책 개발 일환으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2,4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임

## 〈시설퇴소 청년들의 외로움과 고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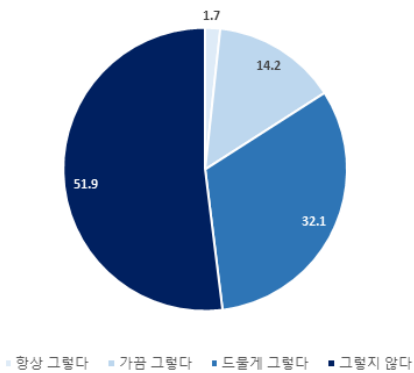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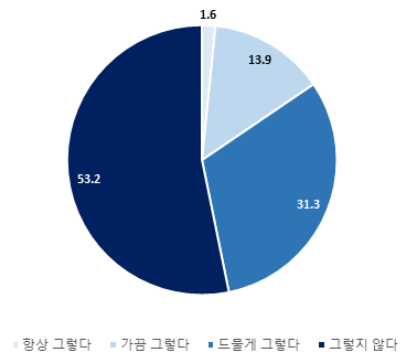
나는 혼자라는 소외감을 느낀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낌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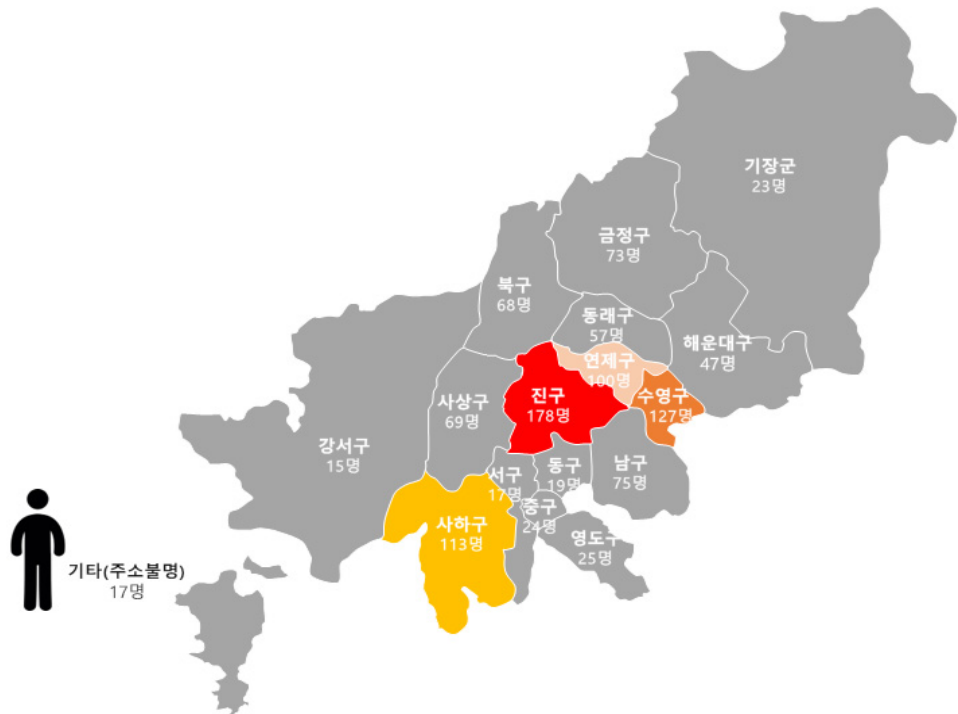
### 3. 부산시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지원 정책

#### 1) 부산시 자립준비청년 현황

- 2023년 8월 기준 부산시 자립준비청년은 총 1,047명임
  - 부산진구(178명), 수영구(127명), 사하구(113명), 연제구(100명) 순으로 나타남
  - 주소불명 자립준비청년은 17명 집계됨

#### 〈부산시 자립준비청년 현황〉

기준: 2023.08.31



자료: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내부자료

## 2)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 특화사업

### ① 자립지원서포터즈단 “청.길.동(청년들이 가는 길을 동행하다)” 사업

- 부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사업
  -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사업을 목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조언해 주며 서로의 지지체계가 되어주는 멘토링 활동을 수행함
  - 1:1 또는 1:2 멘티-멘토 그룹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멘토링 수행함. 멘티-멘토에게 활동비를 지급함
  - 역량강화교육과 멘토 모임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 자기이해 등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함

**자립지원서포터즈단 멘토 모집!**

청년들이 가는 길을 동행할 멘토를 찾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내용 | 자립준비청년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조언해주며 서로의 지지체계가 되어주는 멘토링 활동 |
| 자격 | 부산시에 거주 중이며 만 30세 이하의 멘토 활동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        |
| 인원 | 총 13명                                           |
| 장소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및 자유롭게 활동 가능                    |
| 기간 | 2023. 5. ~ 2024. 3.                             |
| 문의 | 051-441-7006<br>사례지원2팀 신아람                      |

자료: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

### ② “유.자.청(유쾌한 자립준비 청년들)” 사업

-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 청년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활동을 수행함
  - 1박 2일 여행을 가거나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참여자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

#### 4. 시사점

- 자립수당과 정착금 확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청년들의 자립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지원에 대한 의존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경제적 지원은 중요하지만, 현금성 지원 확대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움
  -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정서,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립지원서포즈단 “청.길.동” 사업은 은둔·고립된 자립준비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자원에는 한계가 있음
  - 부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 사업은 멘토와 멘티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 그룹의 지속적인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독립적인 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자.청’ 프로그램은 제한된 인원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음
  - 문화 및 여가 활동이 여행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참가 인원 수의 제한과 활동 빈도의 낮음 등으로 인해 다양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활동은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해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III

## 부산시 자립준비청년 자립현안



## 1.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성장하여 현재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받고 있는 청년과 보호체계와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립준비청년 멘토로 구성됨

## 〈자립준비청년 조사대상자 특성〉

| 조사대상자 | 성별 | (연)나이 | 학력     | 보호체계 유형 | 자립준비청년 기간 |
|-------|----|-------|--------|---------|-----------|
| 청년1   | 여  | 20    | 대학교 재학 | 아동양육시설  | 9개월       |
| 청년2   | 여  | 20    | 대학교 재학 | 아동양육시설  | 9개월       |
| 청년3   | 여  | 21    | 대학교 재학 | 가정위탁    | 2년 9개월    |
| 청년4   | 여  | 21    | 대학교 재학 | 공동생활가정  | 2년 9개월    |
| 청년5   | 남  | 25    | 대학교 재학 | 공동생활가정  | 4년 8개월    |
| 청년6   | 남  | 25    | 대학교 졸업 | 아동양육시설  | 4년 9개월    |
| 청년7   | 여  | 27    | 대학원 재학 | 가정위탁    | 4년 9개월    |
| 청년8   | 남  | 24    | 대학교 중퇴 | 가정위탁    | 2년 4개월    |
| 청년9   | 남  | 23    | 대학교 재학 | 아동양육시설  | 4년 11개월   |

##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전문가〉

| 조사대상자 | 근무기관              |
|-------|-------------------|
| 전문가1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전문가2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 전문가3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 전문가4  |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
| 전문가5  |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
| 전문가6  | 가정위탁 부모           |
| 전문가7  | 자립준비청년 관련 활동가(멘토) |
| 전문가8  |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
| 전문가9  |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

## 2) 조사방법 및 내용

- 다중시각접근법으로 인터뷰 수집 및 프레임워크 분석법(framework analysis)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함
  - 프레임워크 분석법이란 자료 속지-주요 논제에 맞는 자료 추출-논제에 따른 핵심자료 간추리고-패턴 정리 및 이면적 원리를 해석함(Lacey and Luff, 2001)
  - 본 연구의 프레임은 과거(자립 이전 경험), 현재(보호 종료 이후 가져온 변화, 사회적 이슈 및 정책 확대), 미래(미래에 대한 전망)임

### 〈조사내용〉

| 구분 | 세부 내용                                                                                       |
|----|---------------------------------------------------------------------------------------------|
| 과거 | · 보호아동일 때 자립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br>· 퇴소 시 느꼈던 감정                                                |
| 현재 | · 현재 삶 선택한 이유 및 삶의 형태<br>· 퇴소 이후 지지체계<br>· 현재 자립지원정책에 대한 의견<br>· 건강한 자립의 의미와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미래 | ·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

## 2. 조사결과

### 1) 보호아동 시기 경험

#### ① 살아남기 위한 생존욕구와 자유 갈망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아동 시절에 안정적인 보호받으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을 경험하고 강한 생존 욕구를 기진 것으로 확인됨
  - 아동양육시설에서는 보호아동들 사이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퇴소 연령이 되었을 때 보호 연장을 선택하지 않고 즉각 퇴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가정위탁에서 보호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은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을 온전한 가족구성원으로 느끼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음

“아무래도 시설은 지옥이 있다면 거기가 아닌가. (중략) 나이가 계급이라고 좀이 아닌 거의 매일 구타는 사실 일상이었어요.” - 청년9

“그 집에서 지낼 때 어떤 역할이 있었어요. 이모부가 예뻐해주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약간 접촉도 너무 심하게 하시고 (중략) 그런게 느껴지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이모부가) 불편했어요. (중략) 이상했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그 집에 룰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걸 안하면 이모랑 이모부가 또 싸우니까. (중략) 저는 무조건 다 따랐고” - 청년3

- 전문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쉽게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은 일차적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시설 내에서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과정을 통해 이차 분리 경험을 함
  - 안정적이지 않은 돌봄 환경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에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분리를 계속 경험해요. 원가정에서 분리되고, 시설에 와서는 주양육자가 계속 바뀌고, 안정적이지 못한거죠.” - 전문가4

- 다만, 학대 가정에서 온 아동들이 보호체계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경우, 그들은 원가정보 다 더 많은 안정감을 느낀 것으로 확인됨

“아빠랑 삼촌이 엄청 크게 싸우고 그래서 (중략) 직접적으로 학대를 받는건 아니었지만, 어릴 때 보고 자라서 엄청 무섭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오히려 시설에 들어가서 사는게 마음이 편했어요.” - 청년4

“아버지가 좀 흡연이랑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심했는데 이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빙치면서 먹고 그거를 어머니가 항상 수습하고 다니셨거든요. 결국에 진절머리가 나와서 막 이혼하고 막 도망다니다시피 살았는데. 옥탑방 같은 데서도 많이 살고 하다 보니 확실히 시설에 왔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따뜻한 데서 잘 수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 청년6

- 보호체계에 들어오게 된 배경에 따라, 아동들이 보호체계에 대해 가지는 감정과 인식,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배경을 가진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큰 것으로 보임

“사무실에서 결정되는게 많거든요. 제가 학원 다니는 것도 다 결정해야 다닐 수 있는거고, 당연한걸 계속 다 물어봐야 돼요. (중략)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혼자 결정하고 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 청년2

“개인 공간이 없다는게 점점 더 스트레스로 다가온거 같아요. 사춘기 이후 시설에 대한 애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부터는 야자를 핑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없었고요. (중략) 시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는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여서 좀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 청년5

- 반면 가정위탁 배경을 가진 자립준비청년들은 일반 청년들처럼 독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당장 자유를 찾아 집을 떠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음
  - 가정위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은 조손 가정이나 친인척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그들을 키운 보호자를 실제 부모처럼 인식하고 있었음

“자립에 대한 계획을 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지금도 자립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어요. 끝까지 같이 살아야겠다 생각해요. 결혼하면 그 때 나가던지” - 청년7

“저는 능력 있으면 해외로 갈거예요. 능력 있으면 당장 가죠. 진짜. 할머니한테 벗어나고 싶어요. 할머니가 하루종일 제 옆에 붙어다니면서 막 챙기거든요. 집요하게 집착하는 느낌이 들어요.” - 청년8

- 가정위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은 어린 시절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고 난 뒤 영 케어러(Young Carer)가 되면서 돌봄 제공자와 수요자의 역할이 바뀌는 경우가 나타남
  - 직접적으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도 자립정착금과 같은 종잣돈을 가정위탁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음

“큰엄마가 장애인이니깐 혼자 사시기 좀 그러니까...” - 청년7

“고모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직 제 차례는 아닌거 같아요. ... 그래도 할머니에게 용돈 정도는 드리죠.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진 않아요.” - 청년8

“(정착금) 저는 은연 중에 그건 당연히 이모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 청년3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가 손자녀를 키우기 위해 나의 노년을 다 바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부모들은 당연히 이 아이들이 나를 부양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또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는죠.” - 전문가1

## ② 보호체계별 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수준 격차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배경을 가진 자립준비청년들이 인지한 자립교육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그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함
- 가정위탁 배경을 가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스스로 보호종료가 되면 나가야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자립준비 관련 교육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함
-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배경에 따라서도 자립에 대한 정보를 얻는 형태가 다름
  - 시설에서 보호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은 무의미하다고 느끼지만 매년 교육을 제공 받고 있었으며 자립한 선배들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함

- 가정위탁 배경 자립준비청년들은 위탁부모를 제외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립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함. 또한 이미 자립한 선배들과의 교류가 없어 다른 배경 청년들과 비교하여 자립준비에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교육 같은거 2주에 한 번씩 하고, 자립 그거 교육 한다고 모이라고 하고 ...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때쯤 자립에 대해서 돈 관리 이런거 이야기 하고 해요. ... 솔직히 말해서 알려줘도 어차피 잘 안들어요. 귀에 잘 안들어와요. 내가 겪지 않아서.” - 청년1

“자립 교육 하긴 했는데, 다 형식적인 거였어요. 뭔가 사진 찍어야 되니까 ... 프로그램 영상 틀어놓고 ... 저희도 크게 관심 없고 어른들도 막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만 크게 관심 없고, 그냥 해야 하는 느낌으로 했던거 같아요.” - 청년 5

“따로 교육 받은 건 없던거 같아요. 그냥 대학 가면 나와야겠다 생각만 했지. ... 확실히 부산 오길 잘했다고 느낀게, 제가 있던 지역에선 가정위탁지원센터랑 자립지원센터에서 연락 온적 없었거든요. 한번도 없었어요. 보호아동 종결할때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랬지, 근데 부산 오니까 연락 오는거 보고 다르구나 느꼈어요” - 청년3

“먼저 자립한 언니나 오빠들이 와서 이야기 해줘요. 그치만 그 이야기들도 잘 안 와닿아요. 언니들도 그래요. 겪어봐야 안다고.” - 청년2

“교육을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듣고 이런거, 1년에 몇 화씩 정해서 로봇처럼 듣는거는 자율적이지도 않고 비효율적인데.” - 청년6

- 그러나 종사자들은 당사자와 다르게 자립준비 과정을 평가함
  - 시설(가정위탁) 차원에서 일상생활, 돈관리 등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협회, 자립지원 전담기관 도움으로 자립 교육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함

“자립지원센터 이전 협회에서부터 자립 관련 교육들을 계속했고, 저희 아이들도 거기서 교육 받고 자립체험도 했어요.” - 전문가4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입학시킬 때부터 자립을 연습 시켰어요. 내가 집에서 아이 자립을 준비시켜야겠다 하면서 경제적인 것, 혼자 사는 방법,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정위탁 안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 전문가6

“저희도 일상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걸 찾게 했어요. 음식 같은거 만들게 하고”  
- 전문가3

-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종사자가 인식하는 자립준비 수준이 다른 까닭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입장 차이로 볼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이 평가하는 자립교육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로 평가함
  - 반면 종사자들은 제도적 또는 조직적 관점에서 자립교육의 존재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음

## 2)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

### ① 공식적·비공식적 멘토의 영향

- 퇴소 이후 홀로서기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꾸리고 가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이들의 삶의 방향성은 보호아동 때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초등학교랑 중학교때 계속 친구들과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룹홈에서 지내는걸 친구들이 알게되면서 왕따가 되기도 했고. ... 멘토링을 하게 되면서 대학생 선생님이랑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 뭔가 인격 형성이 된 거 같아요.”

- 청년5

“원가정에 학대나 고통을 받았는데, 사실 누구 하나 명확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성당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하나씩 도움을 줬어요. 그 도움 덕분에 원가정에서 분리돼서 나올 수 있었고, 이게 큰 용기랑 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저처럼 도움 못받는 친구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 청년6

“시설장님한테 이야기 많이 하고, 시설장님이 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계속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하니까 ... 저는 (시설장님을) 많이 의지하는거 같아요.” - 청년4

- 자립준비청년 멘토 역할을 하는 활동가 또한 멘토 활동을 통해 과거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시절 겪었던 경험과 감정을 회복하고 있었음

“보호아동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조금씩 찾기 시작해요.” - 전문가7

## ② 사회적 이슈로 인한 갑작스런 정책 확대

- 자립준비청년 관련 다양한 이슈로 인해 지원이 확대되자 보호연장 아동으로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조건 없는 지원에 대한 의존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는 등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
- 반면 이슈로 인해 정책이 확대되었고 자신들의 처지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음

“돈이 100만원씩 들어오니깐, 오히려 그거 받는데 익숙해져서 그런 사람이 어떡하지.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막상 사람이 와닿지 않으면 경각심을 안가지게 되잖아요.” - 청년2

“자립준비청년 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보호종료 개념 자체를 시설에 있을 때 알았더라면 생각해보고 나왔을 거 같은데.” - 청년9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들이 안좋은 하지만, 전 사람들 관심이 없어지는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그런 사건들이 나와서 계속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 청년1

“정책이 연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반기마다 바뀌니까 상반기에는 수당이 30만원인데 하반기에는 갑자기 40만원이 되고, 처음에 내가 자립했을 때는 25만원인가 이랬고 정착금도 300만원인가 그랬던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천만원, 내년에는 2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크게 다가오죠. 뭐랄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 다시 돌아가면 좀 더 연장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 청년5

- 당사자인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착금, 수당 확대 지원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관련 종사자들은 우려를 표함
  - 자립지원정착금을 받고 난 뒤 보호체계와 단절하고 사라지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가정에서 학대방임으로 시설에서 보호되었다가 퇴소 직전 원가정 부모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립준비청년의 정착금과 수당 등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음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성인이 되고 난 뒤 받게 되는 지원금으로, 부모에게 스스로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 상황임

“사실 퇴소하고 힘들긴 하지만 경험하다가 자라날 수 있는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너무 보호하는거 같아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뺏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원 때문에) 심리적 결핍이 되어 있고, 일을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너무 쉽게 선택할 수 있는거죠. 왜냐면 지원이 나오니까. (중략) 의존적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든 건 정부 지원금이 한몫 했다고도 봐요. 또 모든 방면이 사회적으로 (현금)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좀 치우치고 있는 거 같아요.”  
- 전문가7

“의지가 없는 아이가 지원금을 받는데, 자립 준비 조차 안되어 있는 아이인거죠. 이런 아이한테 수당이랑 생계비가 들어와요. 그런데 통장에 있었다가 없어져요. 휴대폰 요금도 무제한 소액 결제 이런 걸 사용해요. 그리고 돈을 받고 난 뒤 위탁 가정하고 연결고리를 끊어요. 정부에서 지원 받는 돈으로 휴대폰 바꾸고 아이가 사라지죠. 누구하고도 연락이 안되는거죠.” - 전문가6

“4남매가 저희 시설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 퇴소하면 돈 많이 받는다고 소문내고 다니세요. ... 퇴소한 아이들 중에 돈 가지고 나갔는데 아빠가 같이 살자고 이야기 해서 아빠한테 돈 다주고, 다시 아이를 버리고 ... 이거는 부모로서 정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전문가5

### ③ 정서적 결핍의 지속

-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대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도 외로움과 공허함을 늘 가지고 있음
  - 홀로 있는 시간에 외로움과 고립감과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음
  -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공황장애 겪고 하면서 심리학 책 많이 읽었는데, 그 책들 가만히 보면 가족 이야기가 늘 나오는거예요. ...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중요한 거구나. 진짜 가족이라는건 원래 이런 거구나.” - 청년1

“코로나 때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 때 좀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뉴스도 그런게 많이 나왔어요. 자립준비청년 고독사 이런 것도 나오니까 진짜 그럴 수 있는 거 같았어요. 내가 혼자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때 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했던 거 같아요.” - 청년5

- 외로움과 공허함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보임

“불면증이 심해지고 하니까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제 삶을 포기하는 시도들을 하면서 우울해지고 마음이 안좋았어요. … 자살시도도 계속 했고…” - 청년8

- 전문가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결핍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음
  - 자립준비청년들이 느끼는 정서적 결핍은 단순히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삶에 대한 의욕, 목표, 방향성 등이 부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심리적으로·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친구들 만나보면 사실 자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은 또 누군가에게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 사실 정책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거 같아요.”  
- 전문가7

“아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자신의 인생 목표에 대한 고민 보다 당장 눈앞에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한거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없는거 같아요.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항상 모르겠어요. 몰라요라고 대답하거든요.” - 전문가9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이전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간) 5년이 넘어간 친구들은 이렇다 할 만한 지원들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 고립감 때문에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어 자해나 자살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 전문가8

### 3) 자립준비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 ① 건강한 자립 의미

- 자립준비청년들 다수는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것을 건강한 자립으로 보고 있었음
  -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직면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음
  - 자립준비청년들 다수는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것을 건강한 자립으로 보고 있었음
- 공통적으로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하는 것이 건강한 자립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자활센터 신청했어요. 심리센터 상담도 요청했고요. 일단 고정수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전 1인분 역할 하는게 성공한 자립이라고 봐요. 혼자서 1인분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좀 부족하지만...” - 청년8

“일단 전 어떤 지원 없이도 자기가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지금 대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차츰차츰 하고 있거든요.” - 청년5

“일단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안정감이 있는 상태, 경제적인거까지도. 그 정도가 맞는거 같아요.” - 청년1

“멘탈이 깨지지 않는 사람,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같아요. 뭔가 돈이 많다고 보다는. 건강한 마인드가 없으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런 애들은 일하기 싫어하거든요. 매달 돈 들어오니깐. 근데 언젠가 그 돈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건강한 마인드 가지고, 멘탈도 잘 잡고.” - 청년2

“취업도 하고, 주변에 만날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자립 잘했다 생각 들거 같아요.” - 청년4

“확실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다 돈이랑 연결되는거 같아요. 돈이 제일 크고” - 청년3

“직장이 있고,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컨트롤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립은 성공했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건 일이 있어야 자립 수준이 올라가는거죠.” - 청년9

“제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거. 그게 성공한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게 성공한 자립 같아요.” - 청년6

## ② 자립준비청년들이 꿈꾸는 미래

-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이 있었으나 방향을 틀거나 현실을 직면하면서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었음

- 자립준비청년 일부는 아동기 때부터 경험했던 사회복지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음

“예전에는 사회복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청소년쪽으로. 그런데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헌타 받고.” - 청년7

“원래 콘텐츠 만드는거 하고 싶죠. 그치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동권리보장원 거기 취업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다 뭔가 아는 선에서 정리가 가능하고.” - 청년5

“저처럼 몰라서 도움 못 받는 친구들이 많다고 봐요. 어떻게든 나도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회복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 청년6

-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소비되는 풍토에 대해서도 수치심과 불편함을 내비침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신청서 같은 거에 체크만 하는거면 부담이 덜하죠.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지원해주는 사업에 선정되서 면접 보러 갔는데, 이게 뭐랄까 내 열정과 포부만 어필하지 않고 내 아픔을 표출해야 되니까. ... 내 아픔을 공모하는 ... 상황 자체가 어쨌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 그거는 이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청년5

“진로 지원비 관련해서 면접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쓸건지 이런걸 물어보면 좋은데, 면접 보러 들어가니까 면접관이 과거에 어떻게 자랐는지 묻고, ... 저는 솔직히 이제 제 삶이 아니니까 말할 수 있긴 한데, 긍정적이거나 떠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게 자랐잖아요. 근데 면접 보면서 서로 다 듣고, 막 울면서 나왔던 경험도. ... 사실 면접관들한테 그런 거를 이야기 하면서 연민을 느끼게 하고 그래야 뽑아줄 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 청년3

- 자립준비청년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걸 찾아갈 수 있는 시간과 제도적 지원 보완도 요구하였음
  - 자립준비청년들도 여타 다른 청년들처럼 진로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위치가 일반 가정 청년들보다 뒤에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보충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예컨대 교통비, 식비와 같이 학교 다닐 때 필요한 비용, 성취감을 주게끔 만든 제도에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너무 두리뭉실할 수 있지만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건 꿈을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그런 프로젝트” - 청년8

“제가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려면 자격증도 따야 하고 해야 하는데 식비나 교통비 이렇게 많이 나가거든요. 도서관 가고, 학교 가면 다 사먹고 하니까. ... 교육비만 지원해주고 다른건 안되니까 아르바이트 하게 되고,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은 보호 받으면서 다 하는데 저흰 그게 안되니까.” - 청년4

“장학금이나 이렇게 중복 지급이 안되니까 의욕이 없어져요. 열심히 해서 성적장학금 받을 수 있는데, 국가장학금 받는다고 안주고, ... 근데 부모님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 통해 등록금 내고 성적장학금으로 돌려 받잖아요. 전 그게 안되니까.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도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저한테는 안줘요. 그런게 좀 그래요.” - 청년3

-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 미래에 대한 설정보다는 막연하게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경제적 자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삶의 방향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청년들에게 필요함
  - 인터뷰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적은 있었으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의 설정은 현재 정하지 못한 상황임
  - 이는 자신을 성찰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고, 더불어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즉, 자아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경험 부족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볼 수 있음

### 3. 시사점

#### 〈자립준비청년과 종사자의 자립현안과 정책 요구〉

| 구분                   | 자립준비청년                 | 종사자                                                       | 인식 차이                                                                                                                                                                                                                                                  |
|----------------------|------------------------|-----------------------------------------------------------|--------------------------------------------------------------------------------------------------------------------------------------------------------------------------------------------------------------------------------------------------------|
| 보호<br>아동<br>시기<br>경험 | 살아남기 위한 생존육구와 갈망       |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였고 불안함을 경험. 생존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님            | ·부모로부터 분리와 시설 내 주양육자의 잦은 변경으로 불안정한 돌봄 환경에서 성장하며, 쉽게 위기를 경험하고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봄                                                                                                                                                                          |
|                      | 보호체계별 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수준 격차 |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가정위탁 출신 청년들은 체계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에 어려웠다고 인식함 | ·자립준비 수준에 대한 평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br>-이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입장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음<br>-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자는 제도적 또는 조직적 관점에서 자립교육 존재를 강조함<br>-수요자인 청년들은 자립교육이 실질적인 도움 정도로 평가함<br>·선행연구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보호체계별 자립수준과 출발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정위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느낌 (차유림 외, 2022) |
| 현재 삶에 대한 평가          | 공식·비공식적 멘토 영향          |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함<br>-인격 형성, 용기, 의 |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회복을 경험함                                                                                                                                                                                                                           |
|                      |                        |                                                           | ·사회적 관계는 자립준비청년과 종사자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심리·정서적으로 긍정적                                                                                                                                                                                                    |

|           |                  |                                                 |                                                                            |                                                                                                                                                       |
|-----------|------------------|-------------------------------------------------|----------------------------------------------------------------------------|-------------------------------------------------------------------------------------------------------------------------------------------------------|
|           |                  | 지력에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 |                                                                            |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br>·선행연구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자조모임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이 자립역량과 정보 공유 등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남(홍나미 외, 2023)                                |
|           | 사회적 이슈로 인한 정책 확대 | ·수당 및 정착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원함   | ·보호체계와 단절하고 사라지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가정 부모로부터 갈취되는 사례도 있음                      | ·종사자들은 경제적 지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경제적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           | 정서적 결핍의 지속       | ·외로움과 공허함을 늘 가지고 있음                             | ·정서적 결핍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당사자들은 현재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종사자들 또한 이들의 정서적 결핍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 미래에 대한 희망 |                  |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건강한 자립으로 인식하고 있음                  | ·삶에 대한 의욕, 목표, 방향성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br>-정서적 결핍을 해소하여야 삶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봄 | ·삶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한 설정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청년과 종사자 모두 동의하고 있음0<br>-다만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음<br>·선행연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 |

|  |  |  |                                                                 |
|--|--|--|-----------------------------------------------------------------|
|  |  |  | 원은 단일한 형태가 아닌 보호아동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조성희, 2023) |
|--|--|--|-----------------------------------------------------------------|

- 이 연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음(청년 8은 대학교 중퇴).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자립준비청년들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차이는 다루지 못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음

IV

## 부산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

| 구분      | 조사결과                                                                                                      | 정책과제                                                                                                                                                                                   |
|---------|-----------------------------------------------------------------------------------------------------------|----------------------------------------------------------------------------------------------------------------------------------------------------------------------------------------|
| 심라·정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욕구가 강하며 통제된 환경으로 인해 자유 갈망</li> <li>· 쉽게 위기를 경험하는 환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보호환경 제공</li> <li>· 아동양육시설 환경 개선 필요</li> <li>· 시설 문화 개선</li> <li>·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지(support) 서비스 강화</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결핍 지속</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건강 측면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홍보 강화</li> <li>- 자조모임 확대</li> </ul> </li> </ul> |
| 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지원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의존도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 현금지원을 통한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 발휘</li> </ul>                                                                                                       |
| 지역사회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본, 문화자본, 인적 자본 체득을 위한 다양한 경험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체계, 정규교과과정 외 다양한 문화활동,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목적으로한 프로그램 지원</li> <li>· 멘토-멘티 프로그램 강화</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 준비에 있어 낭비하는 시간 방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사업 확장</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를 탐구할 수 있는 여건 부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정체감 형성 및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li> <li>· 지역 내 다양한 사업 지원에 있어 자립준비청년들의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li> <li>·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가치지향적인 서비스 개발</li> </ul>   |

## 1. 미래를 좌우하는 성장환경

### 1) 안전한 보호환경

- 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아동 시절 머물렀던 체계 안에서 불안감이 높고 차별과 배제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음
  - 학대피해, 영유아시절 부모로부터 유기 당하거나, 부모 사망,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보호체계 안에 들어오게 됨
  - 보호체계 이전에 일차적으로 분리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과 불안감을 느끼게 됨
- 주 양육자가 수시로 바뀌는 아동양육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양육시설 생활지도원은 보호아동의 가장 가까운 주 양육자로 볼 수 있는데, 교대근무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인해 아이들의 양육·돌봄에 혼란을 가할 수 있음
  - 특히 보호자와 애착형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영유아, 아동기 때 애착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음
  - 아동과 양육시설 종사자들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 이는 궁극적으로 양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생활지도원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양육 교육, 심리·상담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또한, 종사자 잦은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 근무조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을 통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강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문화 개선이 필요함
  - 조사에 응답한 자립준비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시설 내 보호아동들은 아동 간 폭력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일반 가정 아동과 달리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한 규칙이 작동하고 있었음
  - 특히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규칙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율은 오히려 아동들에게 반감을 주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됨
  - 자유에 대한 욕구와 시설에 대한 반감이 강해질수록 빨리 퇴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퇴소 이후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부정적 연결고리(시설 반감 → 빠른 퇴소 → 자립준비 미흡 → 건강한 자립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음)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아동일 때 머무는 강압적인 시설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 연구에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문화와 실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함. 향후 연구에서 문화와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 개선을 위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지(support)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
  - 가정위탁 아동에게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혈연 가정과 비혈연 가정에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함
  - 가정위탁 양육자들의 자발적 양육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가정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또한, 가정위탁 아동들이 조부모에게 위탁될 때 영 케어러가 될 가능성이 큼. 아동 시절부터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영 케어러로 역돌봄하는 청년들에게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즉,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와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보호아동의 성장은 보호체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함
  - 일차적으로 분리 경험을 한 아동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관기관들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 보호아동이 보호체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보호체계와 지역 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보호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또래와 비교하면서 부모 부재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면서 위축되는 경우가 있음
  - 상대적 박탈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하락하고 우울, 부러움, 분노 등 부정적 정서 경험이 증가하게 됨
  -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학교 내 상주하는 교육복지사 혹은 위클래스 상담교사와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하여 보호아동 개별 특성을 반영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지역사회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가족으로부터 축적되어야 하는 자본이 부재한 보호아동은 지역사회에 축적된 사회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즉, 지역사회가 정상가족 프레임이 아닌 지역 안에서 다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프레임으로 변화해야 함
- 지역사회 내 아동발달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보호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시민사회의 협치·연계가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 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

### 1) 자립 관련 현금 지원에 대한 지원 조건 필요

-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 1,000만원(부산 기준)과 매월 40만원씩(2023년 기준) 자립수당을 조건 없이 지원받고 있으며, 2024년은 월 50만원 인상할 계획임
  -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착금과 수당 지급은 필수적인 정책임. 다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오히려 자립준비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제도 의존도를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남
  -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조건 없는 수당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관념이 약화되고, 무분별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차등지원과 성적 기준을 충족하게끔 되어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의 요건인 성적 기준은 오히려 학점 또는 취업과 같은 성취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이 밝혀짐(정은하 외, 2021)
  - 청년들에게 대가없는 무상 지원보다 어느 정도 목표를 도달하였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 또한 조건부 지급이 필요함. 예컨대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후관리의 연속성을 위한 상담 등 사례관리 당사자로 참여하는 조건, 대학생 신분의 청년들은 기본 학점 충족 등 세부 지침을 개발하여야 함
  -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제도에 대한 의지와 건강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발돋움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자립준비청년들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협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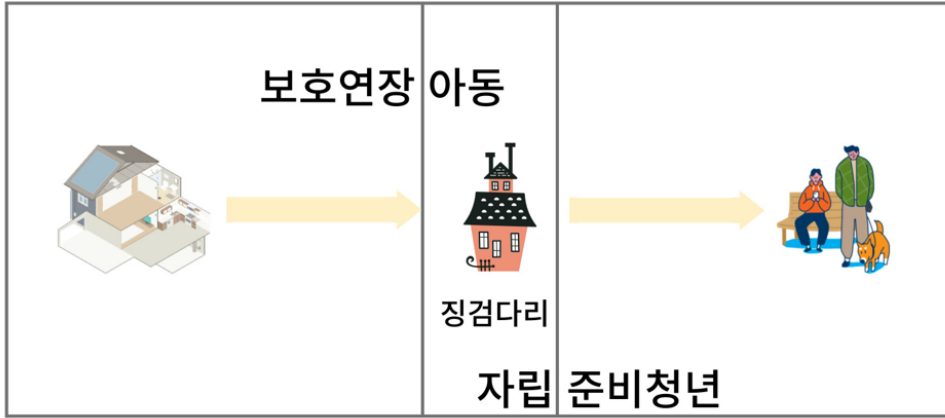
#### 〈자립준비청년 조건 수립 과정(안)〉

| 계획                                                                                                                            | 과정                                                                                       | 모니터링 평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당 지급에 따른 목적 설정 (ex. 학점, 상담 횟수, 진로 활동 등)</li> <li>· 청년 동기 부여를 위한 조건 설정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ex. 자립지원전담기관)를 통한 과정 모니터링, 평가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달성에 따른 모니터링·사후 평가</li> <li>· 효과성 평가</li> <li>· 개선 방안 탐색</li> </ul> |

## 2)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사업 확장

- 2022년부터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지급에 대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아동양육시설 보호연장아동이 시설 밖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를 일반 생계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임
-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사업을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이전 자립 준비 단계로 보고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자립준비청년들은 홀로 살아감에 있어 불안과 두려움,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러한 부정적 정서보다 더 높기 때문에 퇴소를 결정함
  - 자립준비청년 1년차는 다수가 경제관념, 일상생활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자립준비청년은 5년간 지원하는 시간이 한정된 제도임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함. 20살 나이의 청년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자립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특히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배경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이들에게 자유만 제공할 경우 건강한 자립에 대한 고민보다 방황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음
- “중간집” 같은 지원주택을 통한 자립준비청년의 징검다리가 필요함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사유 없이 보호연장아동이 가능함. 다만 자유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보호연장을 선택하기 보다는 퇴소를 선택하여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역에 정착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하게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 기간이 필요함
  - 이러한 연습 기간은 보호연장아동일 때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부산시 차원에서 지역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중간집” 형태의 지원주택을 제공하여 사계절을 보내며 자립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중간집” 관리는 보호연장아동 신분이지만,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때 자립준비청년으로 연결되면서 당사자와 종사자 간 라포 형성이 단단해질 수 있음

### 〈보호연장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징검다리〉



### 3) 정신건강 측면 지원 강화

#### ①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움과 고립감 감정에 대한 개입 필요

-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 ‘혼자’라고 생각하는 중압감이 큰 것으로 유추됨
- 현실은 외로움과 고립감은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되고 자기 책임의 윤리로 무장한 능력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음
  - 이러한 문화적 맥락은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사회와 국가는 개인이 살아감에 있어 온전히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외로움과 고립감의 감정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 즉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함

#### 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홍보 강화

- 정부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소득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우선 지원되는 대상이며 본인부담금도 면제됨. 다만 사업이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신청한 부산시 자립준비청년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함
- 부산사회서비스원과 부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

## 업 홍보가 필요함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욕구가 있는 청년, 혹은 상담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여 연계하여야 하며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질높은 제공인력 제공을 위한 서비스 관리가 필요함

### ③ 자립준비청년들 자조모임 확대

- 외로움과 고립감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형성·유지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음. 즉,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이 필요함
- 자립준비청년들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모임이 중요함
  - 공통의 배경(원가정 해체, 부모 부재 등)을 가진 청년들의 자조모임은 자신을 성찰하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직면할 힘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자조모임은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면서 치유·회복을 경험하는 장이 될 수 있음(홍나미 외, 2023)
- 건강하고 효과적인 자조모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자립준비청년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함에 있어 전문가의 적극적 지원이 투입되어야 함. 마중물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투입으로 자조모임이 결성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양한 비공식적 활동(문화 활동, 여행 등) 지원을 통해 공통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 활동과 여행 등 질 높은 체험은 일상을 벗어나 쉼을 제공하면서 삶에 대한 자심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됨

### ④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교류·공감 연결고리 확대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아동일 때부터 그들을 이끌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부재함
  - “사회 나왔지만 기댈 곳 없어…”(매일경제, 2023), “돕겠다는 사람들도 그저 ‘동정’ 뿐…삶의 방향 알려줄 ‘좋은 어른’ 없나요?”(이투데이, 2023)와 같이 언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어른’의 존재가 부재함을 알 수 있음
-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청년과 중·장년 간 사회연결망을 생성함
  -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센터와 추후 설립 예정인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협약을 맺어 세대 간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함
  - 중·장년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길잡이 역할과 동시에 다양한 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음. 예컨대 현재 수행중인 휴먼북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신중년 세대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인생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음

### 3. ‘자립준비청년’만의 정책을 넘어서는 전 생애 정책

- 자립준비청년만이 아닌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을 연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함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과제〉

| 구분      | 보호아동                                                                                                                                                                                      |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                                                                                                                                                  |
|---------|-------------------------------------------------------------------------------------------------------------------------------------------------------------------------------------------|--------|---------------------------------------------------------------------------------------------------------------------------------------------------------|
| 심리·정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보호환경 제공</li> <li>- 보호자(주 양육자, 보호체계 종사자 등)와 애착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시설문화 개선 필요</li> <li>-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지지(support) 서비스 강화</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건강 측면 지원 강화</li> <li>-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홍보 강화</li> <li>- 자조모임 확대</li> <li>· 자아정체감 형성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li> </ul> |
| 경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지원 조건 필요</li> <li>- 도덕적 해이 방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현금 지원에 대한 조건 설정</li> </ul>                                        |
| 지역사회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체계, 정규교과과정 외 다양한 문화활동,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지원</li> <li>· 멘토-멘티 프로그램 강화</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다양한 사업 지원에 있어 자립준비청년들의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li> <li>·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가치지향적 서비스 개발</li> </ul>  |
| 다차원 자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본, 체득된 문화자본, 인적자본</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 꿈자본</li> </ul>                                                                                |

#### 1) 생애주기별 축적되어야 하는 사회·문화·인적·꿈 자본

-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한 자본 형태가 아닌 다차원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함
  - 자본이 축적되는 방식과 형태는 다르지만 사회자본, 문화자본, 인적자본, 꿈자본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역동을 가지고 있을 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수준과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짐

- 다차원적 자본을 획득했다는 것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 기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청년들이 위기를 경험하였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나의 자본만 획득하는 것이 아닌 다차원적 자본 획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함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기와 청년기가 이어져서 자본을 체득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에 살아감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박탈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아마티아 센, 2013)

#### ① 사회자본

- 사회자본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고, 얻어지게 되는 형태임
  -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으로 구분됨. 구체적으로 타인과 관계에서 생산되는 자원들을 의미함
  - 사회자본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예견하는 강력한 지표임. 공동체 결속, 사회관계 망은 아동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퍼트넘, 2016)
  - 아동기 때 사회자본은 가정 내·외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보호아동들은 가정 내 사회자본 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가정 외에서 사회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함
  - 학교, 또래관계,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자본 축적을 할 수 있음.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는 경험들은 기술이나 지식과 같은 가시적이지 않지만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의사소통, 협력,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음
  - 이러한 활동들이 학교 내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 개선, 학교생활 만족·적응력 향상 등으로 사회자본이 체득됨
  - 아동기 때 체득된 사회자본은 보호아동이 사춘기 시절 겪게 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어백' 역할이 가능함. 즉, 사춘기 시절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기 때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즉,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들과 청년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에 대한 신뢰 향상,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타인과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음
  - 또한, 자립준비청년 다수는 대학생 신분에 있으며 대학교 내에서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김

- 사회자본은 생애주기별 체득되어야함.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자신의 환경을 인식하고, 경제적·정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고,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침
- 자립준비청년이 체득한 사회자본은 체득하여 성인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함

## ② 문화자본

- 문화자본인 지식, 정보, 행동, 자원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제도화된 문화자본과 아동기 시절부터 체득된 문화자본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김수영 외, 2022)
  - 자립준비청년에게 중요한 문화자본 요소는 생활역량으로 볼 수 있음
  - 생활역량은 혼자 살아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이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실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해석할 수 있음(윤명희, 김진화, 2008)
  - 아동기 때 문화자본은 다양한 여가문화 경험으로 체화됨. 독서 경험, 악기 배우기, 미술관 다니기 등 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교양, 취향 등을 발견함. 보호아동 시절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년기 때 문화자본은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수준과 같은 능력을 의미함. 자립준비청년들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나 대학교 중퇴 청년들이 발생하며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상실할 수 있음
  - 대학진학과 졸업이 인생의 목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향후 진로나 미래를 전망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

## ③ 인적자본

- 생산가능인구로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 또한 생산가능인구에 속함. 그러나 비빈곤, 일반가정 배경을 청년들과 다른 환경으로 인적자본형성에 어려움을 가짐
  - 아동기 때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훈련 기회가 부재하고 이는 청년까지 이어질 수 있음(김현숙, 2011)
  - 보호아동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교육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④ 꿈자본

- 자립준비청년이 소유하고 있는 꿈의 능력, 꿈을 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함
- 꿈자본은 궁극적으로 사회자본, 문화자본, 인적자본 등에 의해 갖추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김석호 외, 2017)
  - 자립준비청년들은 꿈을 꾸고, 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청년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낌
  - 자립준비청년들은 꿈자본 획득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 인적자본이 미비하며 당장 눈앞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함
-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정보와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다차원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 연대,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 세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해야 함

## 2) 자아정체성 형성과 회복탄력성 강화

- 자립준비청년은 불안정하고 순조롭지 않은 성인기 이행 과정을 거침
  - 앞서 자립준비청년들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아동 시절부터 자기 존재에 대한 거부와 자기훼손, 분리 경험, 위기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됨
  - 오롯이 혼자 살아가야 하지만 불안정한 자립과 일상생활에서 성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위치에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가치지향적 서비스가 필요함
  - 오롯이 혼자 살아가야 하지만 불안정한 자립과 일상생활에서 성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위치에 있음
  - 자아정체성 형성 이전에 자기불안, 긴장에 대한 해소가 되어야만 자기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음
  -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자기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은 자조모임,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가질 수 있음. 자립준비청년들이 느끼는 감정과 마음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가치 판단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가치지향적인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함

- 자립준비청년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부정적인 경험을 회복할 수 있는 강점과 대처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회복탄력성은 개인적 접근으로 자립준비청년들 중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감과 불안감,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함
- 보편적인 관점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해야 함
  -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업, NGO와 같은 공적 기관이 아닌 공모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때 어려움을 증명하는 경험을 함
  -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동일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그들의 과거보다 그들이 가진 미래 포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함
  - 복지체계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보다 시혜적 시선을 담고 있는 경우가 다수임. 이러한 구조가 가난을 증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회풍토를 만들게 됨(강지나, 2023)
  -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기업이나 NGO 공모 사업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자립준비청년들은 동일한 경험(원가정 해체, 분리 등)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능동적인 청년으로 바라보고 지원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선정 과정에서 수치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참고문헌

- 강지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돌베개, 2023.
- 김석호·주윤정·성연주·김지애·김은지·이상규·김홍중.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 사회, (2017) : 289-331.
- 김수영·강명주·나수빈. Bourdieu 의 다차원적 자본 관점으로 바라본 1 인가구: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중요성에 관하여. 비판사회정책, 75, (2022) : 171-216.
- 김지영. 돕겠다는 사람들도 그저 '동정'뿐. 삶의 방향 알려줄 '좋은 어른' 없나요?. 이투데이. 2023.05.22
- 김현숙. 부모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빈곤 학생과 비빈곤 학생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0, (2011) : 123-150.
- 로버트 퍼트넘 저·정승현 역. 나 홀로 불링. 페이퍼로드, 2016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자립정보북. 2022.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2023.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2022
- 아마티아 센 저·김원기 번역·유종일 감수.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2013
- 윤명화·김진화.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 (2008) : 173-197.
- 이지안. 사회 나왔지만 기댈 곳 없어. 더 서글픈 '자립준비청년'. 매일경제. 2023.03.17.
- 조성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방향성. 미래융합통섭학회, 6, (2023) : 55-65.
- 차유림·민소영·장혜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4:4, (2022) : 79-9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2022.
- 허민숙.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
- 홍나미·박주혜·강현주.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 경험에 관한 포토포이스 연구-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2:2, (2023) : 67-104.
- Lacey, A., & Luff, D. Qualitative data analysis. Sheffield: Trent focus. (2001) : 320-357

2024-03-145

## BDI Insights

|      |                                                                                                                                                               |
|------|---------------------------------------------------------------------------------------------------------------------------------------------------------------|
| 연구책임 | 장지현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
| 연구참여 | 김선우 도시·해양연구실 연구원                                                                                                                                              |
| 발행인  | 신현석                                                                                                                                                           |
| 발행일  | 2024년 03월                                                                                                                                                     |
| 발행처  | 재단법인 부산연구원<br>(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br>☎ (051)860-8850, FAX (051)860-8619<br>웹페이지 <a href="http://www.bdi.re.kr">http://www.bdi.re.kr</a> |
| ISBN | 979-11-6886-145-9 9330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BDI Insights